

호주·미국서 총기사건…시드니 11명·美브라운대 2명 사망

“시드니 총격, 1천명 규모 유대인 행사 겨냥 추정”

“미아이비리그 캠퍼스 안 총격…‘사건관계자’ 검거”

주말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호주의 유명 해변에서 약 1천명 참석 규모의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13일 미국 동부 명문대학인 브라운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14일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 등 11명이 숨졌다. 남성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검거됐으나 중상을 입었다.

로이터통신과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이날 오후 6시55분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외신은 이 사건으로 어린이와 경찰관 등 11명과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을 사살했으며 다른 1명도 체포했다. 검거된 용의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해변에

서 여러 발의 총성과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관광객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차량 뒤에 숨은 시민이 총격범을 향해 달려든 뒤 총기를 빼앗았으나 이후 이 총격범이 다리 쪽으로 달아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됐다.

본다이 해변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가로 특히 주말에는 수많은 서핑 애호가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 해변에서는 1천명 넘게 모인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뉴스닷컴은 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이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주 당국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호주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를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또 다른 용의자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 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사망했다.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러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소재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외신은 이 사건으로 어린이와 경찰관 등 11명과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을 사살했으며 다른 1명도 체포했다. 검거된 용의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해변에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감식반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공동체의 하누카 축제 행사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EPA=연합뉴스

상했다.

경찰이 사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프로비던스의 브렛 스마일리 시장은 ‘사건 관계자’(a person of interest)로 보이는 인물 1명을 14일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사건은 공학대학과 물리학

과가 입주한 7층짜리 건물 ‘바루스 앤드 헐리’ 근처에서 발생했다.

1764년 설립된 브라운대는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다. 학부생 7천여명을 포함해 총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부 학과 률은 54%로, 진학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라고 부른다.

연론은 전했다.

토요일인 이날은 가을학기 시험 기간으로, 캠퍼스 내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건 관련 상황을 톱뉴스로 다루며 실시간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로시마 고교생들 19년째 ‘원폭 그림전’

“전쟁의 참상이 다시 일어나면 안됩니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 히로시마시립 모토마치(基町) 고교 학생들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그린 ‘원폭 그림전’이 지난 13일 시작됐다고 마이니처신문이 15일 전했다.

히로시마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그림전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히로시마는 일본의 침략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로 약 1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흘 뒤 원폭이 투하된 나기시키(長崎)의 사망자 약 7만4천명의 두배 가까운 인명 피해였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번 그림전에는 학생들이 새로 출품한 15점을 포함해 총 35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그림카드를 이용한 그림연극도 1점이 포함됐다. 그림연극은 스토리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뒤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대사나 해설을 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전 첫날인 지난 13일에는 학생들과 피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에서 ‘갤러리 토크’도 열렸다.

피폭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다카구치 히데타카(85)씨의 체험담을 그린 2학년 학생은 “원폭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입학했다. 증언해주신 분이 생각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방공호의 형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다카구치씨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고 ‘내단하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폭 그림전은 모토마치고 학생들이 피폭자와의 기억에 강하게 남은 참상을 후세에 전달하는 취지로 2007년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전시되는 15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22점을 제작했다. 그림전은 연 2회 열린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나토 가입 대신 서방 집단방위 보장으로 타협”

미국·러시아 영토 양보 요구 거듭 거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같은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과 나토 가입을 맞바꿀 수 있다는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서방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거듭 거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

의 돈바스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시리아내 미군 공격 보복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발생한 미군 대상 공격에 대해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2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 의해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IS(미군이 ‘이슬람국가’를 일컫는 명칭)였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